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출판정신'의 나눔

제49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을 돌아보고

이승우

한길사 기획실



독일 방송국이 현지 진행한 저자 초대 프로그램(오른쪽).

전세계 출판인들의 꿈의 축제인 제49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지난해보다 약 2주일 정도 늦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107개국 6,840개 출판사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30만여 종의 출판도서 중에서 신간종수만 해도 약 7만9천여 종에 달했던 이번 전시회에 대해, 주최측은 지난해의 관람객 수준보다 약간 늘어난 30만여 명이 도서전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좋은 본보기 보여준 '예술관'

전세계 출판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다른 도서전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각국 출판사들이 여타의 도서전에 비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비중을 두고 참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우리나라 출판관계자의 참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저작권 계약을 통해 외국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한다는 우려보다도 서구의 앞선 출판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관' 부스는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책과 관계된 다양다종한 캐릭터상품 개발과 '책'이라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실험적 작품들은 고급한 정보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책이 단순히

활자만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책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각국에서 출판된 책의 다양한 디자인, 특이한 책 장정, 본문 레이아웃의 파격 등은 단지 스쳐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될 정도였다.

지난해에 비해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전자출판 분야의 전시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움베르토 에코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책의 궁극적인 운명이 아직은 종이에 인쇄된 상태로 독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한 장의 디스크에 담아내는 기술적 발전의 성과는 미래의 우리 출판문화를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었다.

주최국이 독일이었던 탓도 있지만, 베르톨트 브레히트 탄생 100주년에 즈음한 브레히트 전집과 전기들은 독일 유수의 주어캄프 출판사를 비롯하여 많은 출판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그 선풍적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체 게바라의 전기들은 경쟁적으로 프랑스·독일·미국·영국 등 각국에서 선보이고 있었다. 동행했던 현지 유학생의 말로는 서구에서 체 게바라 열풍은 기성권위에 저항하는 젊은 층에게 더욱 폭발적이라고 한다.

저작권 협상관계로 만났던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주니어 부문 책임자 파스케

(Hedwige Pasquet)가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출판정신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즉 그들은 하나의 시리즈를 새롭게 기획·출간하더라도 책의 질적 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애초에 계획하였던 권수에 못 미치더라도 과감히 계획을 수정·축소, 일정한 격(quality)을 유지하여 책을 만들며, 그것을 통해 다른 나라, 다른 출판사의 책과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니어 부문의 모든 기획력이 그의 두뇌에서 창출된다는 사실에서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만이 문화상품과 연결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책을 통한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

전시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출판관계자 및 관람객들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헬무트 콜 독일 수상과의 우연한 마주침, 도서전 내내 각 출판사 부스에서 이루어지던 저자와 독자와의 간단한 파티, 유명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의 장, 호기심어린 눈초리로 타국의 출판도서를 눈여겨보는 이방인들의 모습 등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한마디로 책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생성과 교류의 광장이었다.

이방인으로서 언제쯤 우리나라도 공식 초청을 받고 '대한민국의 해'를 특별전시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것, 우리 문화를 새롭게 개발하여 그들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웃 일본이 올해에도 총 58개의 부스를 설치, 책을 통해 자국 문화를 세계에 선보이고 몇 년 전 '일본의 해'를 통해 자신들의 출판문화 위상을 전세계에 알린 점은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많은 부스, 많은 출판사가 참가해야만 그 나라의 출판역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질적인 성장 못지 않게 양적인 부분의 성장도 필요하다.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우리의 출판역량도 하루빨리 세계무대에 당당하게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기간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내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미친듯이' 열정적으로 책을 만드는 서구 출판인들의 출판정신이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예술관에서의 충격에서 더욱 그러했다. 입장권 뒷면에 표기되어 있던 "우리는 아름다운 책을 만든다"라는 문구는 편집과 디자인 사이의 영역구분 해소라는 협의적 의미와 아울러 독자들에게 고급한 정보와 재미를 친밀감있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출판정신으로 느껴졌다.

양서의 기획과 출판이 한 국가, 한 사회의 문화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은 그만큼 출판인의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단지 저작권 협상을 통한 외국 출판물의 수입만이 아니라 출판 전반을 반성해볼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교육의 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